

한국대학생방일단 (제 1~2 단) /대학생방한단 (제 1~2 단) 온라인 교류의 기록

1. 온라인 교류 개요

【목적】 한일 양국에서 선발된 대학생이 양국을 이해하기 위해 강의 청강 및 교류,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양국의 매력 및 우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외로 발신함으로써 양국의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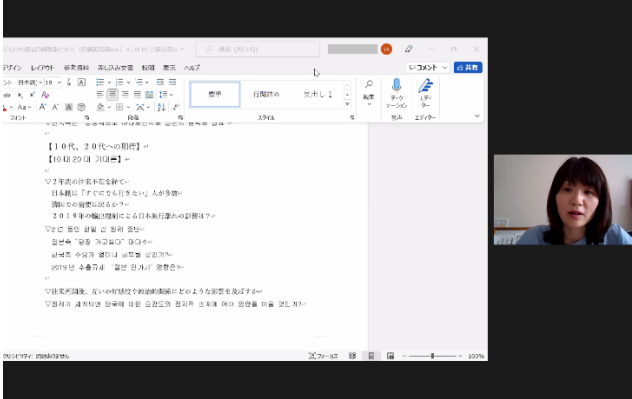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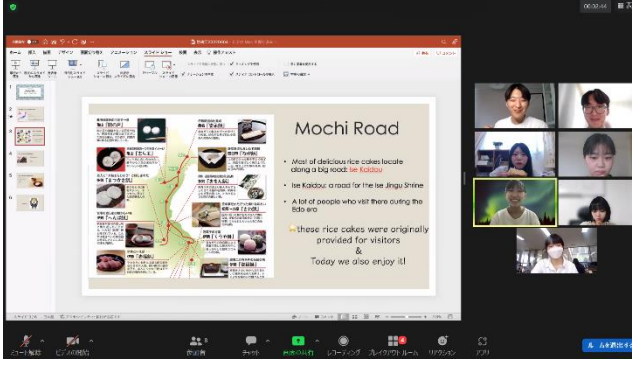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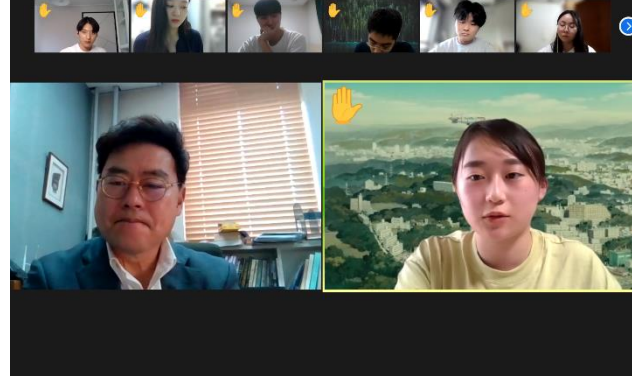
【참가자】 한일 양국의 대학생 84 명 (각 42 명)

【일정】

날짜 방문지	내용	참가자의 질문 · 반응 (참가자 인원, 실적)
1 회차 5 월 28 일 도쿄도, 홋카이도, 오사카부, 아이치현, 이시카와 현, 오키 나와현, 가나가와 현, 구마 모토현 등	【오리엔테이션】 【테마 관련 강의 · 질의응답】 ‘언론이 바라보는 한일관계’ 강사: 마이니치신문 정치부 오누키 도모코 기자 ① 청강 ② 질의응답 【프로젝트 관련 의견 교환】 ① 자기소개 및 자국의 매력 소개 ② 그룹 별 프로젝트 주제 설정	강의에서는 한국의 신정권 발족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변화, 전망 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룹 별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자국의 매력에 대하여 소개를 한 다음, 본 프로그램의 주제에 입각한 관심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상대국의 동세대가 자국에 대하여 보이는 관심의 정도를 확인함과 동시에, 양국의 상황이나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가자: 84 명)
2 회차 6 월 4 일 사이타마 현, 시가 현, 도야 마현, 나 가사키현, 효고현, 히로시마 현, 후쿠 오카현 등	【테마 관련 교류】 식문화에 관한 현지 매력 소개 【테마 관련 강의 · 질의응답】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대학생의 과제와 전망’ 강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김상준 원장 ① 청강 ② 질의응답 【프로젝트 관련 의견 교환】 그룹 별 프로젝트에 관한 토의	테마 관련 교류에서는, 토야마 다시마를 넣은 어묵이나 한국의 떡볶이 등, 각자 출신지나 거주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며 지역의 매력을 발신했습니다. 강의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이나 한일 양국에 있어서 학력사회의 변모, 일본 소도시의 매력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룹 별 프로젝트에서는, 전 주에 계획한 프로젝트 주제와 발표방법 등에 대하여 한일 양국 언어를 구사하면서 열렬히 의논해, 상호이해를 다졌습니다. (참가자: 84 명)

3 회차 6 월 25 일	【프로젝트 관련 의견 교환】 그룹 별 프로젝트 발표 준비 【테마 관련 발표 보고】 그룹 별 프로젝트 발표	총괄적으로 본 프로그램의 테마인 ‘한일 미래와 차세대 교류’에 입각하여 각 그룹이 정한 프로젝트 테마에 대해서 참가자끼리 의견 교환과 조사를 행하면서 이끌어낸 결론과 성과 등을 발표하여 양국의 우호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참가자: 84 명)
------------------	---	--

2. 기록 사진

	
2022 년 5 월 28 일 【테마 관련 강의 · 질의응답】 ‘언론이 바라보는 한일관계’	2022 년 5 월 28 일 【프로젝트 관련 의견 교환】 자국의 매력 소개
	
2022 년 6 월 4 일 【테마 관련 교류】 식문화와 관련된 현지 매력 소개	2022 년 6 월 4 일 【테마 관련 강의 · 질의응답】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대학생의 과제와 전망’

3. 참가자 소감 (발체)

◆ 한국 대학생

지금까지 미디어만을 통해서 일본을 접하고 있었지만, 이번 교류를 통해 일본 동세대를 만나 같이 활동하면서, 일본에 대한 친밀감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 한국 대학생

일본 동세대 분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기쁩습니다. 일본 대학생의 시점으로 바라본 일본의 많은 매력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 **한국 대학생**

지금까지 일본문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일본 측 참가자의 친절한 설명과 원활한 교류 진행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일본 대학생**

동세대 한국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나라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국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 대학생**

해외 동세대 분들과 교류함으로써 상대국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대국에 친구가 생기면서 일상 뉴스를 볼 때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제 자신의 교양지식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할 때, 한일 양국을 비교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몰랐던 점도 알게 되는 등, 자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 **일본 대학생**

한국의 대학생이 일본 문화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일본에 가고 싶어한다는 소리를 직접 듣는 등, 현지 한국 분들과 대화를 해보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매우 귀한 기회였으며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4. 방문처 소감 (발췌)

◆ **일본 측 온라인 강의 교사 (주식회사 마이니치신문사 관계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많은 분들이 질문이나 의견을 공유해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기쁩습니다. 방일단 등 한일 간 단체로서의 왕래가 가능해지면 그때는 대면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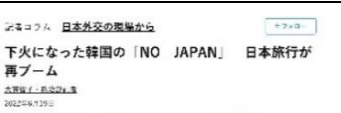
◆ **한국 측 주최기관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

한일 양국의 학생이 의견 교환을 하고 짧은 시간에 그 성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어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등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서로를 향한 관심이 더욱 더 커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장으로도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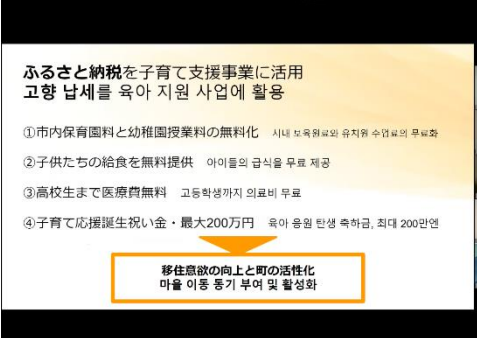
◆ **한국 측 실시기관 (한국 장안대학교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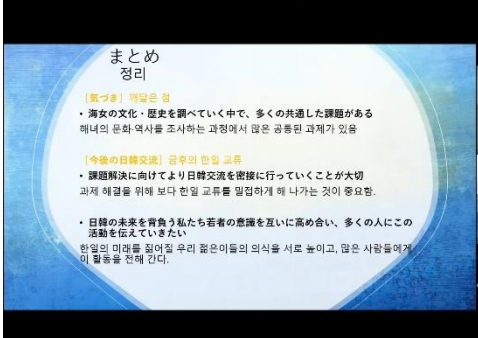
코로나 속에서도 한일 양국의 대학생들이 온라인 상으로 교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국경을 넘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언어는 문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언어를 교환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 발신, 보도기사 등

 일본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 새 학기를 정리하여 발표하고, 별일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일본을 잘 모르기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도 깨질 수 있었다! 일본어 공부도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競技かるた」 고기카루타 ♡ Q A ♡ いいね!! 한일 대학생 온라인 교류 1일차 日韓大学生オンライン交流1日目 グループ別交流の時間であらゆる参加者3名と顔合わせをしました。お互いの文化に興味を持っているのわかっていましたが、磨ききれぬのは少し不安でした。けれど、自己紹介を通して日本・韓国の魅力を伝えることで、お互いに親しくなりたいという気持ちになり芽生え、繋がりが深められたと思います。改めて自国の魅力を発信することの大切さを知りました。(私は日本の魅力を発信することから紹介しました)。 #日韓交流 #2022日韓大学生オンライン交流 #JKCF
2022년 5월 28일 (인스타그램) 일본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을 잘 몰랐기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 공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5월 28일 (인스타그램) 자기소개를 통해 자국의 매력을 전달함으로써 서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자국의 매력을 발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저는 일본의 매력으로서 경기 카루타를 소개했습니다)
 #日韓大学生オンライン交流 日本と韓国の地方都市。 両国とも少子高齢化による過疎化が問題となっている。 お互いの国の政策について話し合い、解決策を考えた。 これからも助け合い、努力できる関係性でいたい。	 日本外交の現場から 下火になった韓国の「NO JAPAN」 日本旅行が再ブーム 大塚優子・長谷川美穂 2022年6月19日 在日韓大生協会の幹事会動画、何となくさながら「NO JAPAN」 東京都市部で2022年6月17日、週末開催 6月10日、22日外国人の団体ツアーを受け入れが再開された。韓国でも、6月から外国人観光客への処遇改善が実施されるようになり、2年後の訪日外国人は200万人と見込まれている。だが、訪日客は依然として減少傾向にある。訪日客の回復が期待されている。訪日客の回復が期待されている。訪日客の回復が期待されている。 日本と韓国の地方都市。両国とも少子高齢化による過疎化が問題となっている。お互いの国の政策について話し合い、解決策を考えた。これからも助け合い、努力できる関係性でいたい。
2022년 6월 25일 (인스타그램) 일본과 한국의 지방도시.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과소화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국가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 등을 고민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6월 19일 (마이니치신문) ‘(표제) 시들어진 한국의 “NO JAPAN” 다시 돌아온 일본여행 붐’ 코로나속에서도 일본 양국의 대학생이 같은 곳에서 만나,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으로 강의 수강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되었습니다.

6. 보고회에서 발표 내용 (발췌)





본 프로그램에서는 ‘한일 미래와 차세대 교류’라는 주제에 입각하여, 각 그룹이 정한 프로젝트 테마에 관한 성과를 마지막 날에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테마 예시 및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 1 개월에 걸친 본 프로그램 성과로써, 다종다양한 방안이 제안됨과 동시에, 한일 간 상호이해 촉진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 나왔으며 그 중요성을 참가자들과 함께 인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예 1: 한일 양국의 Z 세대가 양국의 미래에 어떤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가?

이번 교류를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 정통한 Z 세대가 자신의 관심사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발신함으로써 사실적이고 오해 없는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Z 세대가 할 수 있는 노력 중 하나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 2: 한일 공교육 비교와 전망

외국어 교육에 관해 조사를 하면서, 학습시간 수 부족 등 양국 각각의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일본과 같은 종합형 교육의 필요성이나 온라인을 활용한 국제 교류활동의 강화 등 양국이 서로 배우고 협력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예 3: 일본 가라쓰시 해양쓰레기 문제

이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가라쓰시의 해양쓰레기에는 한국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쓰레기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일 양국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해결책으로서 현재 현지 분들과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회수에 대해서, 양국의 일반시민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가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요소를 넣은 해양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제안합니다. 우리들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일 양국의 일반시민들이 문제를 의식하고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저희들부터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